

6월은 호국보훈의 달

고맙습니다
감사합니다



경기북부

'특별자치도' 뉴스

경기도와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소통·협력
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
"경기도에서는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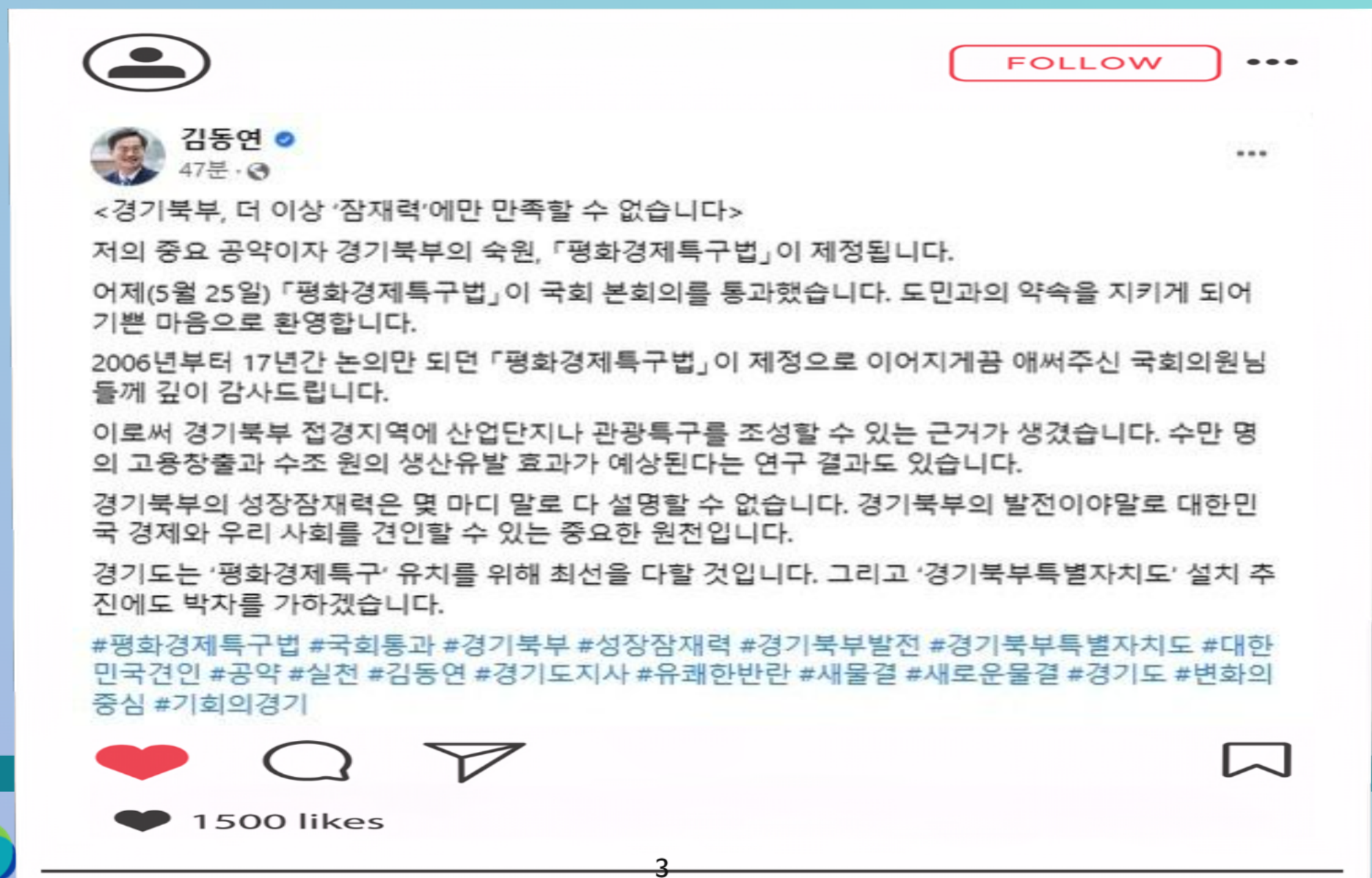


25일, 김포·파주·연천 등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**'평화경제특구법'**이 2006년 첫 발의 후, **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**

'평화경제특구법'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,
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

**"경기북부의 발전은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사회를
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"이라고 강조하며,**

**"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.
그리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."고
약속했습니다.**





또, 지난 20일에는 정전 70주년을 기념해
'DMZ 평화걷기 대회'를 개최했습니다.

김동연 지사는 DMZ 평화열차를 타고 도라산역을 찾아
**"DMZ에서 여는 행사로 경기북부지역이
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독립하고 성장하는
발판을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"**고 말했습니다.

이어 **"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면
대한민국 성장률을 1~2포인트 올리는 일은
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"**고 밝혔습니다.



"포천시에서는"

**"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 남·북부간의 지역적
격차가 해소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
신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."**



25일, 포천시 관내 유관기관장 단체인 여민회가
정례회의를 갖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
결의했습니다.

[사설]

경기도 균형발전의 해법

분가하는 자식을 위한 사랑의 실천.

사랑의 실천이 바로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지역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상생의 지름길이다.

경기남부와 경기북부지역의 격차는
해마다 커지고 있다.

2023년 기준 재정자립도는
경기남부 43.3%, 경기북부 27.3%

1

비수도권 사람들은 경기북부지역이
분가하여 새로운 특별자치도가 되면
수도권과 비수도권(지방)의
지역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
우려를 하기도 한다.

3

경기남부와 경기북부 지역격차 해소와
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로
추진된 것이 "경기북부특별자치도"
설치 추진이다.

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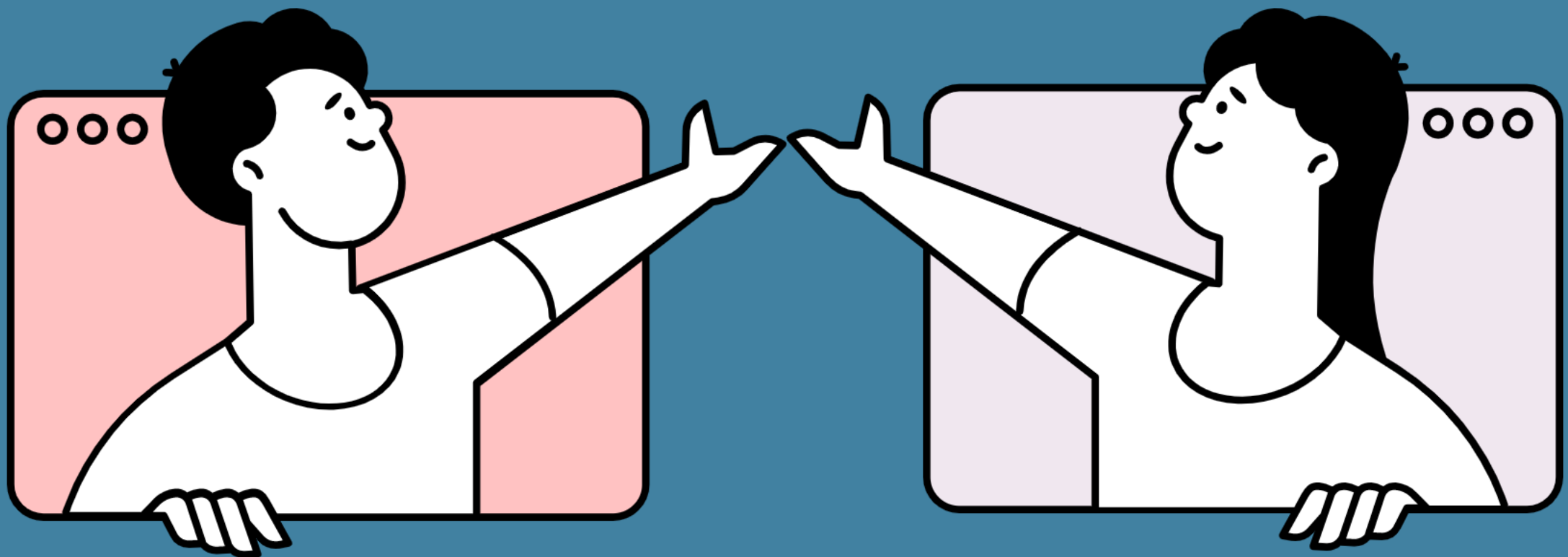
이를 위해 현재 수도권인 서울, 경기,
인천 등이 조성하고 있는 지역상생기금과
연계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에 경기
북부지역과 비수도권(지방)을 위한 상생
기금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을
논의하면 된다.

4



자세한 내용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홈페이지에
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세요!!

https://www.gg.go.kr/north_gg/main.do 🔍



'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' **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**

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·군 그리고 유관기관과의
소통과 협력을 통해 '경기북부특별자치도'가 성공리에
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